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5, No. 137, pp.391-424
<https://doi.org/10.29212/mh.2025..137.39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제2차 보어전쟁(1899~1902)과 영국군의 비정규전 전술 발전

이내주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군사사연구실장

- 목 차
1. 머리말
 2. 전쟁의 과정과 양상(1): 정규전 시기(1899. 10~1900. 6)
 3. 전쟁의 과정과 양상(2): 비정규전 시기(1900. 7~1902. 5)
 4. 전쟁 유산의 수용과 발전: 새로운 전쟁방식의 전통 형성
 5. 맺음말

초록 변칙성과 은밀성을 특징으로 하는 게릴라전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의 한 형태로 본격 등장했다. 역사 속에서 이러한 형태의 비정규전은 특히 식민지인들이 제국주의 세력의 지배에 항거하면서 발전해 왔다. 그러다 보니 식민지에서 독립항쟁이 거세게 몰아쳤던 제2차 세계대전 직후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전형적으로 표출됐다. 이때 영국은 말레이반도에서 독립을 외치는 토착민 공산세력과 치열한 게릴라전을 벌였다.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과는 달리 영국은 게릴라들과의 무력충돌에서 선전(善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영국군은 식민지인들의 변칙적인 저항에 나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었을까? 영국군은 전통적인 정규군 군사작전 교리는 물론 대(對)게릴라전 전술 및 군사지침에도 그동안 훈련되어 왔기 때문이

다. 물론 영국도 19세기에는 식민지인들의 무력 행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오지 못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19세기 끝말에 벌어진 보어전쟁을 계기로 변화를 모색해 왔다. 보어인들이 벌인 게릴라 전술에 혼쭐난 후 적극적으로 비정규전 관련 전술과 대응 교리를 개발하고 이를 군사훈련에 적용해 왔기에 20세기에 점차 거세진 식민지인들의 저항에 그나마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에서는 보어전쟁의 전쟁 양상과 이것이 영국군 전술 향상에 미친 영향을 비정규전 측면에 초점을 두어 고찰한다. 비록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 제국은 사라졌지만, 보어전쟁을 계기로 영국군이 발전시킨 비정규전에 대한 대응 전술은 21세기인 오늘날에도 군사적으로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주제어(Key Word) : 비정규전, 보어전쟁, 트랜스발 공화국 & 오렌지 자유국, 게릴라전, 찰스 칼웰, 찰스 그윈

원고투고일 : 2025. 10. 13. 심사수정일 : 2025. 12. 01. 게재확정일 : 2025. 12. 15.

1. 머리말

21세기 전쟁의 주된 양상들 가운데 하나는 바로 비정규전(irregular warfare)이다. 그런데 여기에 속하는 테러전이나 게릴라전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이야 정식으로 전쟁의 한 형태로 대두했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비대칭 전투방식으로 주목을 받아 왔다.¹⁾ 이는 전통적인 전투 규칙을 벗어나 변칙적인 전술과 민간인 대상의 공격을 특징으로 하며, 주로 소수 민족주의 단체나 혁명 조직 혹은 종교적 극단주의 세력 등이 사용한 전투방식이다. 군인은 물론 민간인까지 폭력적이고 무차별적인 공격 대상으로 삼아 적의 사기를 꺾거나 사회적으로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이 게릴라전(혹은 테러전)의 핵심 목적으로 알려져 있다.

역사 속에서 이러한 형태의 비정규전은 식민지인들이 제국주의 세력의 지배에 항거하면서 발전해 왔다. 그러다 보니 식민지인의 독립항쟁이 거세게 몰아쳤던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전형적으로 표출됐다.²⁾ 구체적으로는 영국의 식민

1) 맥스 부트가 자신의 책에서 고찰하고 있듯이, 이러한 형태의 무력충돌 역시 나름대로 긴 역사를 갖고 있다(맥스 부트, 문상준 & 조상근 역, 『보이지 않는 군대: 게릴라전, 테러, 반란전과 대반란전의 5천년 역사』, 서울: 플래닛미디어, 2023). 더구나 이반 아레긴-토프트는 2,000년대 초반에 근현대 역사 속 비대칭 전력 간 충돌을 정량적으로 분석해 이론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그에 의하면, 정규전과 비정규전 간 구분 기준은 대립하는 두 집단 간 국력 차이가 5배 이상일 경우였다(Ivan Arreguin-Toft, "How the Weak Win Wars: A Theory of Asymmetric Conflict," *International Security*, Vol. 26, No. 1, Summer, 2001, p. 96).

2) 물론 전간기(戰間期)에도 제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민족주의의 영향을 받은 식민지인들 사이에서 영 제국의 지배에 항거하는 소요 사태가 줄기차게 일어났다. 이로 인해 1930년대 중반 이후 유럽 대륙에서 히틀러가 침략 본성을 노골화하기

지배를 받던 말라야 연방(Federation of Malaya), 네덜란드의 식민 통치를 받은 인도네시아, 그리고 프랑스의 지배 아래 있던 베트남 등지에서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 제국에 의해 밀려났던 서양 제국주의 국가들이 대전 후 재차 식민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³⁾ 그런데 이때 독립을 지향하는 토착민 공산주의자들의 극렬한 게릴라전에 맞서서 네덜란드나 프랑스의 경우와 비교해 영국은 상대적으로 선방(善防)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⁴⁾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서양의 다른 식민제국들과는 달리 영국군은 식민지인의 비정규전에 나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을까? 한마디로 영국군은 전통적인 정규군 군사작전 교리는 물론 대(對) 게릴라전 전술 및 군사지침에도 그동안 나름 익숙해져 왔기 때문

이전까지 영국군의 병력 운용 우선순위도 식민지에서의 반란이나 소요사태 방지 또는 질서 유지라는 ‘제국의 안정화’ 역할에 놓여 있었다. 양차 대전 사이 영국군이 수행한 ‘제국 치안유지’ 성격의 군사작전에 대해서는 A. Clayton, *The British Empire as Superpower 1919-1939* (London: Macmillan, 1986); T. R. Moreman, “‘Small Wars’ and ‘Imperial Policing’: The British Army and the Theory and Practice of Colonial Warfare in the British Empire, 1919-39,”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Vol. 19, No. 4 (1996), pp. 105-131을 참고할 것.

- 3) 전체상은 손석현, 『대반란전 사례 연구』(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16)를, 특히 영국군의 경우에는 Daniel Marston, “4. Lost and found in the jungle: The Indian and British Army jungle warfare doctrine for Burma, 1943-45, and the Malayan Emergency, 1948-60,” in Hew Strachen (ed.), *Big Wars and Small Wars: The British army and the lessons of war in the twentieth century* (London: Routledge, 2006), pp. 84-106을 참조할 것.
- 4) Matthew Hughes, “Introduction: British Ways of Counter-Insurgency,” *Small Wars & Insurgencies*, Vol. 23, Nos. 4-5 (2012), p. 581. 특히 이라크 전쟁에서 다국적군 사령관을 역임한바 있는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장군과 저명한 군사사학자 앤드루 로버츠는 최근(2024년) 공동 집필한 『Conflict 컨플릭트: 1945년부터 가자전쟁까지, 전략은 어떻게 진화했는가』(허승철·송승중 역) (책과함께, 2024)에서 말라야 비상사태 시 영국군의 대응을 ‘대게릴라전 작전의 교과서’라고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2장 탈식민지 전쟁 1947-1975’ 중 pp. 78-86을 볼 것).

으로 볼 수 있다.⁵⁾ 물론 영국도 19세기에는 식민지인들의 저항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오지 못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19세기 끝말에 벌어진 최대 식민지 무력충돌인 보어전쟁(the Boer War, 1899-1902; 정확하게는 제2차 보어전쟁)에서 보어인들이 벌인 게릴라 전술에 혼쭐난 후 적극적으로 비대칭전 관련 전술과 대응 교리를 개발하고, 특히 이를 식민지 주둔군의 군사훈련에 적용해 왔다. 보어전쟁은 영국군이 비정규전에 대한 교리와 전술을 재검토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된 셈이었다.

어떻게 해서 보어전쟁은 영국군에게 비대칭전을 주목하는 계기가 됐을까? 흔히 보어전쟁은 비대칭전의 고전적 사례로 거론된다. 이는 사회경제적으로 낙후된 교전 집단이 우세한 적군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사회의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끌어낼 목적으로 벌이는 전쟁 형태인데, 바로 보어전쟁 시 세계 최고의 산업국가인 영국군에 대항한 보어인 게릴라들의 활동 양상이 이에 해당했기 때문이다.⁶⁾ 보어인들은 소규모 민병대를 조직하고 이를 활용해 빠르고 은밀하게 이동하며 영국군을 괴롭혔다. 정규전 중심의 교리에 의존했던 영국군은 전술적 유연성과 적응력 부족으로 전쟁 초반 상

5) 그동안 영국 군사사 분야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어온 ‘British Way in Warfare’ 논쟁이 주로 정규전 사례에 주목해 영국과 유럽대륙 간 군사적 관계 규명에만 집중됐음을 지적하며, 이언 베케트와 같은 군사사가는 비정규전 분야를 영국군이 선도적으로 개척한 또 다른 전쟁수행 방식으로 평가하고 있다(Ian F. W. Beckett, “Another British Way in Warfare: Charles Callwell and Small Wars,” in I. F. W. Beckett, ed., *Victorian at War: New Perspectives*, Society for Army Historical Research, 2007, p. 89). 사실상 베케트는 이미 1990년 관련 학술지인 *Small Wars & Insurgencies* 창간호에 비정규전에 관한 논문을 게재(“The Study of Counter-insurgency: A British Perspective,” 1/1, April, 1990)하고, 이후 단행본(*Modern Insurgencies and Counter-Insurgencies: Guerrilla and Their Opponents since 1750*, London: Routledge, 2001)까지 발간할 정도로 이 분야의 대표적 연구자이다.

6) David Omissi & Andrew S. Thompson (eds.), *The Impact of the South African War* (Basingstoke: Palgrave, 2002), p. 7.

당한 인명 손실을 당했다.

고전(苦戰) 끝에 전쟁 중·후반기에 이르러서야 효과적인 게릴라전 대응 교리를 개발해 적용할 수 있었다.⁷⁾ 이처럼 보어전쟁은 전후 영국군이 비정규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기울인 중요한 계기가 됐다. 실질적 측면에서도 보어전쟁 중에 개발된 성공적인 대(對)게릴라전 방식(예컨대, 전신선 활용, 소형 토치카 제작 설치, 기동타격대 운용, 특정지역 인구의 소개 및 재집중화 등)은 20세기를 통해서 영국의 비정규전 실행에 적절하게 활용됐다.⁸⁾

그동안 보어전쟁이 영국군의 전술 교리 발전에 미친 영향과 관련해서는 그 연구 초점이 주로 제1차 세계대전 초반 독일군과 벌인 전투에서 개혁 효과가 나타난 정규전 교리 발전 측면에 맞추어져 왔다. 특히 대전 초반 영국군이 독일군에 대응해 발휘한 선전(善戰)은 보어전쟁의 교훈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훈련한 결과라는 방향으로 연구가 이뤄져 왔다.⁹⁾ 국내의 경우에는 19세기 서양의 제국주의 진출이라는 측면에서 또는 영국 국내에서의 애국주의 및

7) 보어전쟁 동안 양측이 펼친 비정규전의 전체상에 대해서는 보어전쟁 120주년을 기념해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 역사가 앙드레 웨셀(Andre Wessels)이 기고한 “A Historical Overview of Boer Guerrilla and British Counterinsurgency Operations during the Anglo-Boer War, 1899-1902,” *Small Wars and Insurgencies*, Vol. 34, No. 2 (2023), pp. 328-356을 참고할 것.

8) Ian Beckett, “The South African War and the Late Victorian Army,” in P. Dennis & J. Grey (eds), *The Boer War: Army, Nation and Empire* (Canberra: Army Military Unit, 2000), p. 36.

9) 이에 대해서는 Hew Strachen, “The Boer War and Its Impact on the British Army, 1902-14,” in Peter B. Boyden, Alan J. Guy and Marion Harding (eds), *Ashes and Blood: The British Army in South Africa 1795-1914* (London: National Army Museum, 1999), pp. 85-98; N. Gardner, *Trial by Fire: Command and the British Expeditionary Force in 1914* (Westport, CT, 2003); Spence Jones, *From Boer War to World War: Tactical Reform of the British Army, 1902-1914* (Norman: Univ. of Oklahoma Press, 2012); Tim Bowman & Mark Connelly, *The Edwardian Army: Recruiting, Training and Deploying the British Army, 1902-1914* (Oxford Univ. Press, 2012) 등을 참고할 것.

젠더 담론 등과 관련해서 보어전쟁을 다룬 연구는 일부 존재하지
만¹⁰⁾, 전쟁사 측면에서 보어전쟁을 고찰한 연구는 거의 전무(全
無)하다고 해도 무방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에서는 20세기 전반기에 영국이 세계 최
대의 식민지를 유지 및 통치할 수 있던 실질적 비결이 보어전쟁의
경험에 있었다는 관점에서 본 전쟁의 양상과 영향에 대해 살펴보
려고 한다.¹¹⁾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정규전 양상으로 전개된 전
쟁의 초반 과정을, 그리고 제3장에서는 초반과는 달리 비정규전
양상으로 전개된 중·후반기의 과정을 살펴본다. 끝으로, 제4장에
서는 이처럼 보어전쟁 과정을 통해서 드러난 비정규전의 양상과
교훈이 전후에 영국군 내에서 계승되어 내재화하는 모습을 당대에
발간되어 크게 주목을 받은 세 편의 발간물(에서 위원회 보고서,
찰스 켈웰의 『작은 전쟁』, 그리고 찰스 그윈의 『제국 치안유지 활
동』)을 중심으로 고찰한다.¹²⁾

10) 안태형, “영국 노동계급의 애국주의: 보어전쟁을 중심으로,” 『서양사연구』 (2000. 2), pp. 25-67; 이성숙, “영국 페미니즘과 애국주의: 남아프리카 전쟁 담론을 중심으로,” 『여성과 역사』 제1권 (2004. 12), pp. 189-219.

11) 한 예로, 핑케르크 철수 직후인 1940년 6월 처칠 수상은 지시로 영국군이 창설한 특수 부대인 코만도(Commandos) 부대(오늘날 영국 육군의 엘리트 특수부대인 SAS의 전신)도 그 직접적 기원은 보어전쟁의 경험에 있었다. 보어전쟁 시 보어인들은 자신의 민병대(militia)를 보어 언어로 ‘작은 부대’라는 뜻의 ‘코만도’ 부대라고 불렀다. 실제로 처칠 자신도 20대 중반의 젊은 시절 보어전쟁에 *Morning Post* 특파원 자격으로 참전하여 보어군의 포로로 잡혔다가 극적으로 탈출하는 등 보어전쟁의 게릴라전을 직접 경험하고, 자신이 본국에 송고(送稿)한 기사 모음집 및 탈출기(記)를 책자로 발간해 영국에서 커다란 인기를 얻은 바 있었다(Winston S. Churchill, *The Boer War: London to Ladysmith via Pretoria Ian Hamilton's March*, Wildside Press, 1900. 3). 이처럼 보어전쟁의 영향은 다양한 형태로 제2차 세계대전 때까지 영국군에서 면면히 이어졌음을 엿볼 수 있다.

12) *Esher Report* (1904), Charles E. Callwell, *Small Wars: Their Principles and Practice* 3rd ed. (1906), Charles W. Gwynn, *Imperial Policing* (1934). 켈웰 및 그의 저술에 대해서는 필자의 줄고 “19세기 영제국의 식민지전쟁과 그 수행방식: 찰스 켈웰의 ‘작은 전쟁(Small Wars)’ 이론을 중심으로,” 『영국연구』 제51호 (2024), pp. 2-35를 볼 것.

2. 전쟁의 과정과 양상(1) : 정규전 시기(1899. 10~1900. 6)

보어전쟁은 영국과 보어공화국 간에 약 2년 반 동안 이어진 전쟁이었다. 정확하게는 영국군 정규부대와 주로 민간인 자원병으로 구성된 보어군대가 역사상 두 번째로 격돌한 사건이었다. 일찍이 장악한 바 있는 기존 케이프타운(Cape Town) 지역에¹³⁾ 더해 1845년 남아프리카 동부 연안지대인 나탈(Natal)까지 차지한 영국정부가 1850년대 초반 독립을 인정해 준 바 있는 내륙 쪽의 트란스발 공화국(1852년 건국)과 오렌지 자유국(1854년 건국)을 제1차 보어전쟁(1880. 12~1881. 3) 실패 후 재차 넘보면서 결국에는 제2차 보어전쟁으로 비화한 것이었다. 공교롭게도 영국인들에 의해 척박한 내륙으로 내몰린 보어인(네덜란드계 농민)들의 새로운 정착지 일대에 다이아몬드와 금이 다량으로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¹⁴⁾ 실제로 이 지역에서는 현재 김벌리와 요

13) 원래 네덜란드 동인도회사가 기항지로 개척한 남아프리카의 케이프 식민지를 유럽 대륙에서 프랑스와 전쟁 중이던 1806년 초 영국정부는 60여척의 군함을 급파해 점령하면서 이곳에 발을 들이기 시작했다. 19세기 후반기에 내륙지역에서 대규모 금광이 발견되기 이전에는 최대 식민지 인도로 가는 해상 교역로의 안정적 확보가 가장 중요한 동인이었다. 이 지역을 둘러싼 영국과 네덜란드 간 경쟁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것: 김윤진 & 김광수, 『남아프리카사』 (서울: 다해, 2013), ‘제4장 영국의 침략과 케이프 식민지의 건설(pp. 85-104)’.

14) 오늘날 남아프리카 공화국(인구 약 6천만 명, 면적 약 122만km², 남위 22-35도)으로 불리는 이곳은 원래 17세기 중엽 이래 네덜란드 이민자들이 몰려오면서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들은 흑인 토착민들과 계속해 충돌하면서 주로 내륙에 정착해 농사를 지었다. 바로 이들 네덜란드계 백인 농부들을 ‘보어인(Boer)’ 또는 아프리카너(Afrikaner,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백인 원주민)라고 불렀다.

하네스버그 두 도시 형성의 근간이 된 1867년 다이아몬드 광산(김벌리)이, 그리고 1886년에는 대규모 금광(요하네스버그)이 발견됐다. 그동안 거의 쓸모없는 땅으로 여긴 채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던 영국이 급기야 이 지역들마저 차지하려고 자본(資本)의 민낯을 드러낸 셈이었다.

19세기 후반기에 값비싼 광물이 대량으로 채굴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모험적인 영국인 사업가들의 탐욕을 자극했다. 급기야 영국 정부를 움직여서 내륙 지역에 터 잡고 살고 있던 보어인 정착민들을 재차 압제하려고 했다. 곧 영국 케이프 식민지 총리로 있던 거물급 광산업자 세실 로즈(Cecil J. Rhodes, 재임 1890-1896)의 밀명을 받은 영국 식민지 행정관 제임슨(L. S. Jameson)이 이끈 일단의 영국인 무장 집단이 1895년 12월 29일 트란스발 공화국을 침공한 이른바 ‘제임슨 습격사건(Jameson Raid)’이 벌어졌다.¹⁵⁾ 사건은 실패로 끝났으나 이러한 영국 측의 만행에 척박한 땅을 일구어 살면서 독립적인 성향을 지니게 된 보어인들이 크게 반발했고, 급기야는 무력충돌로까지 번졌다. 독일 황제 빌헬름 2세의 암묵적 지지에 고무된 트란스발 공화국의 폴 크뤼거(Paul Kruger) 대통령은 당대 최강국인 영 제국의 압박에 결연히 맞서고자 했다.¹⁶⁾

15) 사건 실패 후 호전적 제국주의자로 잘 알려진 앨프리드 밀너(Alfred Milner, 재임 1897-1905)가 영국 남아프리카 고등판무관이자 케이프 식민지 총독으로 부임했다.

16) 당시 독일 제국과 보어공화국은 정치적 및 군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는 양국 공통의 적인 영국에 대한 반감에서 비롯됐다. 빌헬름 2세는 보어전쟁 발발 이전부터 영국의 세계 제패를 견제하려는 의도 아래 보어공화국의 정치적 독립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1896년 1월 초에는 영국의 제임슨 습격을 막아 내는 데 성공한 트란스발 공화국의 크뤼거 대통령에게 일종의 ‘축하 전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보어전쟁 동안에도 독일은, 비록 공식적으로 지원하지는 않았지만, 국제사회에서 보어공화국의 입장을 지지했을 뿐만 아니라 사적(私的) 차원에서 자원병 파견이나 무기 및 물자 지원활동을 금지하지 않았다.(출처: Deni Judd & Keith Surridge, *The Boer War*,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2, pp. 38-39).



[그림 1] 남아프리카 지도, 1899~1910 (출처: 인터넷 핀터레스트)

“트란스발과 오렌지 자유국을 병합한다”는 영국 측의 최후통첩에 대응해 보어공화국의 크뤼거 대통령은 ‘결사항전’을 다짐하며 선전 포고를 발했다. 마침내 1899년 10월 11일 오렌지 자유국 대통령 스테인(Martinus T. Steyn)을 총사령관으로 한 약 4만 명에 달한 보어군대가 영국의 케이프 및 나탈 식민지에 있는 영국군 주둔 주요 도시들(철도 분기점에 위치한 마페킹, 김벌리, 레이디스미스)을 선제공격해 포위망을 구축했다.¹⁷⁾ 바야흐로 제2차 보어전쟁에 불이 붙은 것이었다.

17) 객관적 전력상 크게 불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보어군은 선제공격을 감행했을까? 이렇게 하면 제1차 보어전쟁 때 ‘마주바 언덕 전투(1881. 2. 27)’에서 참패한 영국이 먼저 강화를 요청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제2차 충돌 때는 그러한 예상이 한참 빗나가면서 보다 큰 전쟁으로 확산했던 것이다. 보어군의 전쟁 준비 전반에 대해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 군사사가인 Ian van der Waag의 “South Africa and the Boer Military System,” in P. Dennis & J. Grey (eds), *The Boer War: Army, Nation and Empire* (Canberra: Army History Unit, 2000), pp. 45-70을 참고할 것.

당시 남아프리카에 있던 영국군은 채 2만 명이 되지 않았다. 다행히 영국군은 보병, 포병, 그리고 기병으로 나름 짜임새 있게 편성되어 있었으나, 초반에 투입된 영국군 병사들은 대부분 전투 경험이 부족하고 특히 보어군의 변칙전술에 대한 대응 능력이 떨어졌다. 평소 영국군이 주둔하고 있던 식민지의 주요 도시들이 보어군의 포위 상태에 처하게 되자 영국 본국 정부는 신속하게 보충 병력을 남아프리카로 보냈다. 자치령에도 도움을 요청해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지에서 거의 총 3만 명을 상회하는 자치령 자원병들이 속속 먼 곳 남아프리카의 전장으로 도착했다.¹⁸⁾

그러나 전쟁 초반 영국군이 보어군에 연이어 패배하자 영국 정부는 계속해 인원을 증파해 토벌군 규모를 크게 늘렸다. 병력과 더불어 다량의 무기와 군수물자를 수송선에 실어 영국에서 저 멀리 남아프리카의 항구로 보냈다.¹⁹⁾ 그 덕분에 1900년 5월경에 이르면 영국군의 총병력은 약 25만 명에 육박해 기껏해야 최대 동원 병력 5만 명 정도에 머문 보어군에 대해 압도적인 수적 우세를 점할 수 있었다.²⁰⁾ 영국 측의 병력 증강은 전쟁 후반부까지 지속되

18) Denis Judd & Keith Surridge, 앞의 책, 2002, p. 76.

19) 보어전쟁 발발 시 영국은 솔즈베리경의 보수당 내각(1895-1902)으로서 식민부 장관에 조셉 체임벌린, 국방부장관에 랜스타운경, 그리고 육군 총사령관은 가넷 울즐리 윈수가 봉직하고 있었다. 제1차 보어전쟁 시 글래드스톤의 자유당 정부에 비해 제국주의적 성향이 강했다. 따라서 제1차 보어전쟁 때처럼 협상을 노린 보어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영국 보수당정부는 처음부터 강경 대응을 택했다. 다량의 군수물자와 전국에서 징병한 파병 병력(전쟁 초반인 1899. 10~1900. 1월 사이 영국에서 운송된 병력은 무려 112,000명에 달함)은 철도를 통해 잉글랜드 남부의 사우스햄튼 항구에 집결한 후, 이곳에서 배로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 항구까지 운송됐다. 이에 대해서는 Ian Beckett, *Victorian at War* (London: Cambridge Univ. Press, 2003), pp. 198-201을 볼 것.

20) 당시 보어공화국의 전체 인구는 기껏해야 50만 명 정도였다. 게다가 이들 중 전투에 동원 가능한 16~60세 사이의 보어인 남성(burgher라 불림)은 최대한 높여 잡아도 총 9만 명을 넘지 않았다.(출처: Ian van der Waag, 앞의 글, 2000, p. 48).

어 종전 직전에는 무려 최대 약 45만 명에 육박했다.

전쟁 발발 이후 약 2개월에 걸쳐서 빠르게 병력과 물자를 대폭 보완한 영국군이 내세운 전략 목표는 트란스발과 오렌지 자유국을 점령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영국군이 의도한 초기 작전은 보어군의 방어선을 돌파해 보어공화국 핵심 도시인 블룸폰테인(Bloemfontein, 오렌지 자유국 수도)과 프리토리아(Pretoria, 트란스발 수도)를 장악하고 그 외에 중요한 군사 거점을 파괴하는 것이었다. 보어군이 이용하는 주요 보급로를 차단하는 것도 중요한 작전 목표였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보어군의 협상 요청을 유도함으로써 전쟁을 조기에 종결하려는 전략이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전쟁 발발 직전에 독일로부터 대량 구매(약 2만 2천 정)한 최신형 마우저 소총(M98)과 크루프 강철 야전포(구경 75mm)로 무장한 보어군이 민첩하고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전쟁은 장기전으로 빠졌다.²¹⁾

전쟁 양상 측면에서 보어전쟁은 크게 두 시기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²²⁾ 첫 단계는 전쟁 초반인 1899년 12월에서 1900년 6월까지로 전쟁 초반 보어군의 전력(戰力)을 얽잡아 보고 방심한 영국군이 연이어 패배한 후 전투력을 보강해 반격에 성공하기 시작한 시기였다. 미세한 측면에서는 다양한 양상이 존재했지만, 넓게 보아 양측의 충돌은 통상적인 정면 대결 방식으로 수행됐다. 특히 영국군은 전쟁 초반에 벌어진 일련의 전투에서 보어군에게 연거푸 패했

21) 보어군 포병은 주로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지에서 초빙된 외국인 장교들에 의해 창설 및 조련됐다. 전반적으로 영국군의 포병 화력에 비해 여전히 초보 단계였으나, 전쟁 초반에는 영국군을 놀라게 할 정도로 위력을 발휘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Ian van der Waag, 앞의 글, 2000, p. 50을 볼 것.

22) 통상적으로 보어전쟁의 전개 과정은 3단계로 설명되고 있다: 영국군이 수세에 몰린 전쟁 초반기(1899. 10~1900. 2, 불러 총사령관 지휘 시기), 영국군의 반격기(1900. 2~1900. 9, 로버츠 총사령관 지휘 시기), 비정규전 시기(1900. 9~1902. 5, 키치너 총사령관 시기). 하지만 본고에서는 전쟁 양상의 두드러진 변화를 기준으로 정규전 시기와 비정규전 시기라는 두 단계로 대별해 살펴본다.

다.²³⁾ 이 중에서도 영국군은 콜렌소 전투(Battle of Colenso, 1899. 12. 15)²⁴⁾와 스피온 콕 전투(Battle of Spion Kop, 1900. 1. 23~24)²⁵⁾에서 참패를 당했다.

보어군의 전투력을 과소평가한 채 임했다가 이처럼 초전 대결에서 호되게 당한 영국군은 기존 전쟁방식에 근본적인 전환을 모색하며 병력과 물자를 대폭 증강했다. 덕분에 점차 전세를 반전(反轉)시키면서 1900년 봄에 접어들어 본격적으로 포위 상태에 있는 도시들에 대한 구출작전을 전개할 수 있었다.²⁶⁾ 이후 영국군은 연이은 패배로 경질된 블러(Redvers Buller) 장군 후임으로 영국 원정군 총사령관(Commander-in-Chief)으로 부임(1899. 12~1900. 11)한

23) Edward M. Spiers, "1. Between the South African War and the First World War, 1899-14," in Hew Strachen, ed., *Big Wars and Small Wars: The British army and the lessons of war in the twentieth century* (London: Routledge, 2006), p. 21.

24) 1899년 12월 15일 나탈(Natal) 지역의 콜렌소에서 최초로 대규모 전투가 벌어졌다. 영국군은 2만여 명의 병력을 동원, 약 8,000명의 보어군이 포위하고 있던 나탈의 중심도시 레이디스미스(Ladysmith)를 탈환하고자 했다. 그런데 진격 중 투겔라 강을 도하하는 과정에서 보어군의 포격 및 공격에 노출되어 무려 1,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영국군은 보어군의 강력한 방어선 돌파는커녕 오히려 기동력이 뛰어난 보어군의 변칙 공격에 상당한 병력과 장비를 잃은 채 후퇴하고 말았다.(출처: Denis Judd & Keith Surridge, 앞의 책, 2002, pp. 125-126).

25) 전쟁 초반 보어군에게 대패해 망신을 당한 영국군 수뇌부는 한 달여 동안 전열을 재정비한 후 재차 레이디스미스 구출작전에 돌입했다. 먼저 도시 진입로 상에 있는 고지대 강제고지 스피온 콕 점령을 시도했다. 그런데 그곳에는 이미 보어군이 진지를 구축한 채 지키고 있었다. 보어군의 집중포화에 노출된 영국군은 사망 250명, 부상 1,000여 명이라는 심각한 인명 피해를 입은 채 하루 만에 재차 퇴각하고 말았다. 우여곡절 끝에 레이디스미스는 결국 1900년 2월 28일야 구출되기는 했지만, 연이은 참패에 영국군 수뇌부는 큰 충격을 받았다.(출처: Denis Judd & Keith Surridge, 위의 책, pp. 134-135).

26) 영국군의 반격이 처음으로 성과를 내기 시작한 것은 파르데베르크 전투(Battle of Paardeberg, 1900. 2. 18~27) 때부터였다. 영국군은 본국에서 충원된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보어군의 핵심인 이곳 점령에 성공했다. 이 전투에 대한 상세 내용은 Thomas Pakenham, *The Boer War* (1979), 'Chapter 28 Gone to Earth' (pp. 331-342)를 볼 것.

로버츠(Frederick Roberts) 장군의 과단성 있는 전쟁 지도(指導)에 힘입어 포위된 도시들을 탈환함은 물론 보어공화국의 두 수도인 블룸폰테인(1900. 3. 13)과 프리토리아(1900. 6. 5)를 점령할 수 있었다. 보어인들의 두 공화국 수도를 함락시켰으니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이제 전쟁은 영국 측의 승리로 끝난 것이나 진배없었다. 하지만 이는 순진한 바램이었다. 보어인들의 진면목은 바로 이후 단계에서 분명하게 과시됐기 때문이다.

3. 전쟁의 과정과 양상(2) : 비정규전 시기(1900. 7~1902. 5)

개전 초반에는 보어군도 나름 정규전 방식으로 영국군에 맞서고자 했다. 하지만 영국군이 빠르게 보강되며 전력상 격차가 크게 벌어지자 점차 비정규전 방식으로 선회했다. 보어군은 기동성이 뛰어난 소단위 게릴라(유격) 부대를 활용해 영국군의 후방을 공격하고 철도와 보급선을 차단하는 등 영국군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전투방식을 구사했다. 원래 독립적 성향의 개신교도 농부로서 황무지를 개간하고 야생동물 및 아프리카 원주민들과 수시로 충돌하면서 생활해온 터인지라 보어인들은 선천적으로 강인하고 타인의 억압에 저항하려는 독립심이 강했다. 게다가 평소에도 무기를 보유한 채 능숙하게 다룰 줄 알았기에 한마디로 타고난 게릴라 자원이었다.²⁷⁾

27) Ian van der Waag, "South Africa and the Boer Military System," in Peter Dennis & Jeffrey Grey (eds), *The Boer War: Army, Nation and Empire* (Canberra: Australian Army History Unit, 2000), p. 54; Ian Knight, *South Africa 1880-1902: Boer Guerrilla versus British Mounted Soldier* (Osprey: Oxford, 2017), p. 11.

전체 전투역량 측면에서 영국군에 비해 크게 열세였던 보어군은 영국군이 대규모 공세로 나오자 정규군 간에 정면 대결을 회피한 채 특히 두 자치 공화국의 수도가 차례로 함락된 1900년 중반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민병대(burghers in arms)를 주축으로 한 게릴라(Boer commando) 전술로 맞섰다.²⁸⁾ 보어군의 경우 오렌지 자유국에서는 드 벳(Christiaan de Wet)이, 트란스발 지역에서는 쿠스 드 라 레이(Koos de La Rey), 루이 보타(Louis Botha), 그리고 얀 스무츠(Jan C. Smuts)라는 걸출한 지휘관들이 등장해 게릴라 부대를 이끌었다. 이들의 활약에 힘입어 보어군은 대규모 정규전에서는 속절없이 밀렸으나 기동성과 은밀성을 활용한 게릴라 전술을 통해 끈질기게 영국군을 괴롭혔다. 홈그라운드(利點)을 지닌 보어군은 산악 지형을 활용하여 기동전과 유격전으로 대응했다.

이러한 보어군의 게릴라 전술에 고전을 거듭하자 영국군 수뇌부도 점차 기존 정규군 중심의 전투방식에서 탈피를 모색했다. 이에 대(對)게릴라 전술을 개발 및 적용하기 시작했다. 영국군은 보병과 기병의 협동작전을 기본 축으로 보어군의 기동력을 제한하려 했다. 보어군의 방어 거점을 포위함과 동시에 이들의 군수물자 공급망 자체를 근절할 목적으로 전국적으로 보어군의 주요 보급로를 차단하는 대규모 점령 작전을 전개했다. 영국군은 봉쇄 및 점령 작전 수행, 그리고 특히 날쌔 보어군 게릴라 부대에 대응해 기존

28) 평소에도 보어인 성인들(주로 자영 농민)은 비상 상황이 벌어지면 스스로 무장(말, 소총, 탄약 등 개인물품 지참)을 하고 정해진 장소에 집결해 소규모 인원 위주의 기동타격부대를 편성해 사태에 대응했는데, 이를 ‘코만도 체계(commando system)’라고 불렀다. 이들이 남아프리카에 정착한 이래 끊임없이 흑인 토착민들과 무력충돌을 벌이는 과정에서 18세기말부터 구체화되기 시작한 제도였다. 이처럼 보어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게릴라전에 최적화되어 있었다. 이들의 전투 방식은 흔히 ‘폭풍과 쇄도 전술’이라 불렀다. 자세한 내용은 F. Pretorius, “10. The Experience of the Bitter-ender Boer in the Guerrilla Phase of the South African War,” in John Gooch (ed.), *The Boer War: Direction, Experience and Image* (London: Frank Cass, 2000), p. 171을 볼 것.

전통 기병대 이외에 일종의 ‘특화된 부대’를 신편(新編)하고 운용 전술을 개발해 적용함으로써 전세를 점차 유리하게 이끌 수 있었다.²⁹⁾

그럼에도 전쟁이 속절없이 길어지자 급기야 영국군은 보어군 게릴라들을 원천적으로 고립시키려는 과감하고 무자비한 조치를 단행했다. 특히 로버츠 장군의 참모장이었다가 1900년 11월 말에 총사령관 직책을 인수인계한 키치너(Herbert Kitchener) 장군이 이러한 정책을 단호하게 밀어 붙였다. 그는 비정규전화하고 있는 전쟁을 종결시킬 목적으로 크게 세 가지 대응책을 과감하게 실행했다.³⁰⁾ 첫째로, 전임자 로버츠가 시작한 ‘초토화 정책(scorched earth policy)’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보어공화국 영토를 체계적으로 파괴했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도시와 수천 개에 달하는 농장들을 대상으로 방화, 가축 도살 및 약탈, 그리고 농작물 훼손을 자행했다. 보어 게릴라의 먹거리 조달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조치였다.

다음으로, 1900년 12월부터 이듬해 10월경까지 거의 1년 동안이나 주요 전장 지역에 거주하는 보어공화국 주민들을 강제로 일종의 집단수용소(concentration camps)에 가두었다. 심지어 여

29) 보어전쟁 중반 이후 영국군은 일명 ‘기마보병대(mounted infantry)’를 편성해서 운용했다. 영국군은 승기를 잡기는 했으나 소규모 전투에서는 익숙한 지형과 빠른 기동을 무기로 활동하는 보어인 게릴라들에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이를 타개할 목적으로 보병과 기병을 혼합한 일종의 ‘하이브리드형’ 기동 타격대를 편성해 대응함으로써 효과를 볼 수 있었다. 명칭처럼 기마보병대는 공격 목표지점까지 말을 타고 신속하게 이동한 후 실제 전투가 벌어지면 말에서 내려 보병처럼 낮은 자세로 적진을 향해 진격했다.(출처: Ian Knight, *South Africa 1880-1902: Boer Guerrilla versus British Mounted Soldiers*, Oxford: Osprey Publishing, 2017, pp. 12-13 & p. 29).

30) F. Pretorius, “10. The Experience of the Bitter-ender Boer in the Guerrilla Phase of the South African War,” in John Gooch ed., *The Boer War: Direction, Experience and Image* (London: Frank Cass, 2000), pp. 166-167.

기에는 여성과 어린이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게릴라 민병대의 가족을 감금함으로써 사기를 떨어뜨리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 끝으로, 신속하고 과감한 토벌작전을 전개했다. 즉 보어인 게릴라를 추격하여 전장 전체에 걸쳐서 총 8,000km에 이르는 철조망 담장과 주요 지점을 연결해 구축한 9,000여 개에 달하는 소형 콘크리트 요새(blockhouses, 일명 토치카) 그물망 안으로 몰아넣고 사살하거나 생포했다.³¹⁾ 격렬한 찬반 논쟁에 시달렸으나 결국에는 키치너가 독심 있게 밀어붙인 이러한 전투방식 덕분에 영국군은 1902년 5월 마침내 전쟁을 끝낼 수 있었다.

인종주의와 관련하여 흔히 보어전쟁은 유색인 토착민과의 싸움이 아니라 백인들 간의 충돌이라는 측면에서 ‘신사들의 전쟁(gentlemen’s war)’이라 불렸다. 하지만 당시 사령관 키치너를 비롯한 영국군 수뇌부는 보어인들을 걸만 백인처럼 보이는 ‘비(非)문명화된 야만인’과 진배없다고 인식하고 가혹하게 취급했다.³²⁾ 그러다 보니 원래는 게릴라들의 활동 근거지를 없앤다는 의도로 실행했으나 수용소에서 인명 피해가 급증했다. 이와 더불어 열악한 환경 실태가 언론 등을 통해 영국 내 일반 대중과 특히 국제사회에 알려지면서 영국 정부는 대내외적으로 거센 비난에 직면해야만 했다.³³⁾

31) Ian van der Waag, 앞의 글, 2000, p. 53.

32) Sibylle Scheipers, “Counterinsurgency or irregular warfare?: Historiography and the study of ‘small wars’,” *Small War & Insurgencies*, Vol. 25, Nos. 5-6 (2014), p. 885.

33) 집단수용소의 열악한 환경과 이로 인한 질병 확산으로 인해 어린이와 여성을 포함해 약 28,000명의 보어 민간인과 약 20,000명에 달한 다른 아프리카인들이 감금 상태에서 사망했다. 이와 관련해 영 본국에서 발간된 신문 기사 내용과 사태를 둘러싸고 벌어진 논쟁에 대해서는 Paula M. Krebs, *Gender, Race, and the Writing of Empire*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99), ‘Chapter 2. The concentration camps controversy and the press (pp. 32-54)’를 참고할 것.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보어전쟁에서는 영국 본토 병력은 물론 제국 내 다른 자치령(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에서 파병된 인원들도 영국군의 일원으로 참전했다.³⁴⁾ 이처럼 제국 내 인적 자원을 대거 동원했음에도 보어전쟁 중 영국군은 상당한 병력 손실을 감수해야만 했다. 전투 중 죽은 사람도 많았으나 무엇보다도 실전과는 거리가 먼 질병과 식량 부족으로 인해 사망한 인원도 상당했다. 실제로 전쟁 초반에 영국군은 군수물자 보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말라리아, 발진티푸스, 장티푸스와 같은 전염병에 시달렸다. 보어전쟁 기간 중 영국군 총 22,000여 명이 전사했는데, 대부분 경우에 진짜 사인(死因)은 전투가 아니라 질병 감염이었다.³⁵⁾

이처럼 전쟁의 장기화로 인명 손실이 늘어나고 특히 국내에서 반전(反戰) 여론까지 거세어지자 영국은 보어공화국에 평화협상을 제안했다. 망설이던 보어공화국도 점차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고 1901년 말에 접어들면서 협상에 적극 관심을 보였다. 무엇보다도 보어군의 전매특허인 게릴라 전술이 더는 영국군에게 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침내 1902년 5월 31일 양국 간에 페레이니히 조약(Treaty of Vereeniging)이 체결되면서 2년 8개월 동안 이어져 온 전쟁이 끝났다.³⁶⁾ 종전 조약이 체결되면서 그때까지 전국의 다양한 근거지에서 게릴라 활동을 벌이고 있던 총 2만여 명에 달한 보어인 민병대 병사들도 무기를 내려놓아야만 했

34) 이때 식민지 병력의 주축을 이룬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지원병들의 활약상에 대해서는 보어전쟁 발발 100주년을 기념해 1999년 오스트레일리아 군사연구소 주관 국제 콘퍼런스에서 발표된 글들을 모은 Peter Dennis & Jeffrey Grey (eds), *The Boer War: Army, Nation and Empire* (Canberra: Australian Army History Unit, 2000)를 참고할 것.

35) S. Pagaard, "Disease and the British Army in South Africa, 1899-1900," *Military Affairs*, 50 (1986), pp. 71-76에 자세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음.

36) 페레이니히는 오렌지 자유국과 트란스발 공화국 경계선 근처에 위치한 작은 도시였다.

다.³⁷⁾ 영국은 전쟁에서 승리해 트란스발 공화국 및 오렌지 자유국을 직할 왕령식민지(Crown Colony)로 만들 수 있었지만, 막대한 인명 피해와 재정적 부담을 감수해야만 했다.³⁸⁾ 보어군은 전투에서 패배했으나 제한적이거나 자치권을 유지하고 있다가 1910년 남아프리카 연방(The Union of South Africa)으로 자치령 지위를 얻었다.

4. 전쟁 유산의 수용과 발전: 새로운 전쟁방식의 전통 형성

보어전쟁은 전후 영국 사회와 특히 영국군 개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³⁹⁾ 초반 단기전 예상과는 달리 전쟁이 길어지면서 영국

37) F. Pretorius, "10. The Experience of the Bitter-ender Boer in the Guerrilla Phase of the South African War," in John Gooch (ed.), *The Boer War: Direction, Experience and Image* (London: Frank Cass, 2000), p. 178.

38) 영국군에게 보어전쟁은 말 그대로 최대 식민지전쟁이었다. 총 32개월간 이어진 전쟁에 영국 본토 및 자치령(예컨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16,000명, 뉴질랜드에서 6,000명, 그리고 캐나다에서 7,000명 파병)에서 총 448,000명이 참전했고 이들 중 총 22,000여 명이 전사했다(병들거나 부상당한 인원까지 합하면 그 숫자는 무려 75,000명에 달함). 재정적으로도 당시로선 엄청난 액수인 2억 3천만 파운드 의 전비(戰費)가 투입됐다.(출처: Hew Strachan, ed., 앞의 책, 2006, p. 21).

39) 이에 대해서는 종전 후 영국 본토 및 남아프리카 식민지에 미친 보어전쟁의 영향을 다각적으로 고찰하고 있는 David Omissi & Andrew S. Thompson (eds.), *The Impact of the South African War* (Basingstoke: Palgrave, 2002)을 볼 것. 물론 연구자에 따라서는 보어전쟁 직후 멀리 동북아시아에서 벌어진 러일 전쟁(1904-05)이 두 강대국 간 충돌이라는 측면에서 영국군에 준 교환적 효과성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보어전쟁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최근 한 연구는 보어전쟁이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이전에 영국군의 전술 및 훈련 개혁 측면에 미친 영향이 상당했음을 크게 4개 분야(원리 및 사기, 보병, 포병, 기병)로 나누어 촘촘하게 고찰하고 있다(Spencer Jones, 앞의 책, 2012).

군의 비효율성과 대응전략 부재 등 문제점이 확연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보어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중요한 전쟁 형태로 대두한 게릴라전이나 테러와 같은 비정규전에 대한 군사적 대응 방식 측면에서 유용한 지침을 제공했다. 영국군은 보어전쟁 중 보어인 게릴라들의 ‘치고 빠지는’ 기만 공격전술에 호되게 당하면서 비대칭전의 특징과 전쟁 중 민간인 보호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 개혁의 필요성과 유용한 아이디어가 정부 차원은 물론이고 중견급 현역 참전 장교들에 의해서도 구체적으로 제기됐다.

우선 정부가 공식적인 반응을 보였다. 1903년 10월 열린 위원회(Elgin Commission) 산하에 전쟁성(the War Office) 주도로 개혁안 도출 임무를 수행할 에서 위원회(Esher Committee)가 설치됐다.⁴⁰⁾ 보어전쟁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영국 지상군을 효율적이고 현대화된 군대로 변모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내는 것이 위원회의 목표였다.⁴¹⁾

그래서 1904년 3월 발간된 에서 위원회 보고서(Esher Report)는 주로 군사적 효율성 향상과 군 구조 개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우선, 보고서는 군의 모든 분야를 일원적으로 통제할 수

40) 1903년 초여름 보어전쟁에 대한 총체적인 조사 및 분석을 위해 열린 백작(Earl of Elgin)을 위원장으로 왕립조사위원회(전체 명칭은 Royal Commission into the Conduct of War)가 임명됐다. 이후 위원회는 약 두 달에 걸쳐서 조사활동을 벌인 후 같은 해 8월 두 권짜리 조사보고서를 발간했다. 본 보고서를 토대로 좀 더 세부 사항을 조사할 목적으로 위원회 멤버이던 에서경(Lord Esher)을 책 임자로 삼아 전쟁성 산하에 설치한 것이 바로 에서 위원회였다. 본 위원회는 1904년 1월~3월까지 활동하며, 특히 보어전쟁의 군사적 측면을 집중적으로 조사 및 분석해 그 결과를 발간했다(E. M. Spiers, 앞의 책, 2006, pp. 24-25).

41) 위원회 의장을 맡은 제2대 에서 자작(본명은 레기날드 B. 브레트로 당시 자유당 정치인, 1852-1930)의 이름을 붙여서 통상 ‘에서 위원회’로 불린 모임에는 고위 군 관계자, 정치인, 그리고 군사 전문가들이 포진했다. 이들은 영국군의 기존 구조와 운영 방식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합당한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열정적으로 활동했다.

있는 중앙집중적인 지휘 구조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어전쟁 중 영국군은 분산된 상태로 지휘 및 통제된 탓에 전략적 측면에서 통합과 조정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군 지도자들의 지휘 역량 함양을 위해 군 교육기관에서 전략적 사고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군의 인적 및 물적 자원의 모집 및 배분과 같은 행정관리 시스템을 보다 효율화하기 위한 개혁 방안도 제시됐다. 보어전쟁에서 드러난 병력 운영과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극복하려는 조치였다.⁴²⁾

이와 더불어 영국이 제2차 세계대전 직후까지 세계 최대의 식민지 보유국으로 군림했다는 측면에서 볼 때, 보어전쟁이 영국군에 미친 보다 주목할 만한 영향은 바로 비정규전 분야가 아닐까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대로, 보어전쟁 중반쯤까지 영국군은 대규모 병력을 동원한 정규전에서의 승리라는 전통적 교리에 충실했으나 게릴라 전술을 주 수단으로 삼아 비대칭전으로 대응한 보어 민병대에게 고전을 면치 못했다. 이러한 보어군의 게릴라 전술은 영국군에게는 새로운 도전으로서 자연스럽게 군의 기존 전술과 병력 운용을 재검토하고 변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앞에서 살펴본 정부의 공식 조사보고서에 더해서 비공식적 차원의 발간물도 쏟아져 나왔다. 이들 중 영국민 및 영국군 지도부에게 비정규전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어전쟁을 직접 경험한 현역장교들이 쓴 책을 꼽을 수 있다. 우선, 찰스 켈웰이 쓴 『작은 전쟁』이 있다. 1896년 처음 선보인 이 책은 식민지전쟁, 게릴라전, 반란 진압 등 다양한 형태의 전투를 사례로 삼아 비정규전의 복잡성과 다면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보어전쟁

42) 사실상에서 위원회 보고서에서는 비정규전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고 주로 효율적인 정규전 수행과 관련된 의제인 군 상부 지휘구조의 전문화, 군 예비병력 구조의 간결화, 그리고 군 재정의 건전화 등과 같은 다소 굵직한 이슈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에 포병장교로 참전한 바 있는 그는 자신의 직접 경험을 토대로 전쟁 발발 직전인 1899년 7월에 발간한 두 번째 개정판의 미비점을 보완해 1906년 이 책의 세 번째 개정판을 발간했다.

그의 책은 비정규전에 대한 이론적 틀을 제공하며, 이후 영국군과 다른 서방 국가들의 비정규전 교리 개발에 중요한 지침서가 됐다.⁴³⁾ 보어전쟁 중 보어군의 게릴라 전술을 경험한 켈웰은 앞선 판본들에서 고찰한 비정규전 전술을 더욱 치밀하게 다듬었다. 소규모 부대의 유연하고 기동성 있는 운용과 지형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통해 비정규전 상황에서 군사작전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⁴⁴⁾ 아울러 작전 성공을 위해 사전에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 수집, 민간인과 게릴라 간의 협력관계 차단, 그리고 적 보급선 차단 및 아군 병참선 보호 등을 강조했다. 동시에 게릴라들의 인적 및 물적 활동 기반이 바로 현지 토착민들의 협조였기에 적대적

43) Ian F. W. Beckett, “Another British Way in Warfare: Charles Callwell and Small Wars,” in I. F. W. Beckett (ed.), *Victorian at War: New Perspectives* (Society for Army Historical Research, 2007), pp. 89–90 & p. 96. 비록 켈웰이 분석 대상으로 삼은 전쟁들은 시기상 19세기에 벌어진 제국주의 전쟁이지만, 본질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고 전제할 경우 20세기 이후의 비정규전에까지 적용될 수 있는 핵심 교리의 토대를 놓은 가장 대표적 인물임은 분명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국주의 시대의 전쟁 연구 권위자인 포치 역시 그를 ‘식민지전쟁 분야의 클라우제비츠’라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Douglas Porch, “Introduction,” to Charles E. Callwell, *Small Wars: Their Principles and Practice*, Lincoln, NB: Bison Books, 1996, p. xii).

44) 이러한 차원에서 켈웰은 1906년 개정판에서는 보어전쟁의 교훈을 바탕으로 게릴라전 전반(全般)을 대폭 보완(Chapter XI. Guerilla Warfare in General)하고, 특히 보어전쟁 후반기에 보편화되다시피 한 기마보병대의 활용(Chapter XXII. Cavalry and Mounted-Troops Generally)에 대해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원래 보어전쟁이 발발했을 때, 그는 지중해 몰타 섬의 영국군 부대에 있었다. 보어전쟁 초반 영국군이 보어군에게 연달아 참패하면서 자신의 중대 병력과 함께 남아프리카 전선으로 전출되어 더반(Durban) 항구에 도착한 후 레이디스미스 탈환전에 중포병 부대로 전환 배치됐다. 1900년 2월 초반부터 실전에 투입된 그는 특히 1900년 10월에서 1901년 7월까지 트란스발 지역에서 벌어진 보어군 게릴라 토벌작전(counter-guerrilla operations)에 참여했다.

인 민심(民心)의 회복을 소탕작전의 성패를 좌우하는 전제 조건으로 보았다. 한마디로 그는 군사적 승리뿐만 아니라 정치적 안정 유지 및 주민의 협력 획득을 비정규전 승패의 핵심 요소로 꼽았는데, 이는 심지어 21세기인 오늘날에도 유용한 지침이다.

캘월에 이어서 제1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영제국 식민지에서 치룬 비정규전 관련해 가장 주목할 만한 인물은 찰스 그윈 장군이었다. 그는 1934년 『제국 치안유지 활동』이라는 제목으로 책의 초판을 발간했다. 여기에서 그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영제국의 식민지에서 벌어진 데모, 폭동, 반란과 같은 소요 사태에 어떻게 대응해 질서를 재확립할 수 있는지를 고찰하고 있다.⁴⁵⁾ 사실상 제1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영 제국의 식민지에서는 일명 ‘작은 전쟁’이라고 부를 만한 쌍방 간 무력 충돌은 매우 드물었다. 기껏해야 인도 식민지 북부 국경선 지역에서 인도 주둔 영국군과 아프가니스탄 파탄족 사이에 간헐적 무력 충돌이 있었을 뿐이었다. 그 대신 질서 유지 차원의 조치(imperial policing)가 필요한 폭동이나 소요 사태가 주류였다. 그러다 보니 1920년 초반 아일랜드 사태를 제외하고는 식민지 주둔 군대의 주 임무는 질서 유지나 소요 사태 진압과 같은 상대적으로 소규모 비무장 인원이 투입되는 ‘제국 경찰관’ 역할에 국한됐다.

책을 집필하면서 그윈은 군 생활 중 자신이 식민지에서 겪은 다양한 실전 경험들을 활용했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캘월의 『작은 전쟁』을 기초로 삼아 전체적인 틀을 고안했음을 밝히고 있다. 그는 군 생활 말년인 1926~1931년까지 영국 김벌리 소재 참모대학 학교장(Commandant of the Staff College)으로 재직했는데, 이

45) Charles W. Gwynn, *Imperial Policing*, 2nd. ed. (London: Macmillan, 1939). 그윈의 연구에 대한 분석은 Stanislav Malkin, “From Small Wars to Counterinsurgency: C. W. Gwynn, ‘Imperial Policing’ and Transformation of Doctrine,” *Small Wars & Insurgencies*, Vol. 30, No. 3 (2019), pp. 660-678 을 볼 것.

때 참모대학 교과목 중에 이미 『작은 전쟁』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가 전역 직후부터 집필 작업에 착수해서 1934년 자신의 책을 발간한 사실을 고려할 시 집필 시 선각자격인 캐럴의 책을 참고했으리란 점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⁴⁶⁾

아마도 그윈은 자신이 이해한 『작은 전쟁』의 비정규전 내용을 토대 삼아 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서 영국 장교단용 식민지 질서 유지 및 대민통제 대비 훈련 원칙을 정립하고자 시도한 것 같다. 즉 캐럴이 주로 실제 전투 상황을 상정하고 교리를 설파한 데 비해, 그윈은 식민지에서 피정복민의 반란이나 소요사태 등에 대응해 질서를 유지하는 일종의 경찰관 역할을 염두에 둔 채 단순한 군사적 차원에서 이른바 정치사회적 차원으로까지 비정규전 개념을 한 단계 높였다고 볼 수 있다.⁴⁷⁾

캐럴과 마찬가지로 그윈도 심리전 및 민심 획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현지 주민의 협력 없이는 비정규전에서 승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현대 비정규전 교리의 핵심 요소인 소규모 부대의 기동성과 더불어 심리전과 민심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 책들이 영국군의 비정규전 교육 자료로 채택됐다는 사실에서도 그 수준과 영향력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본서들을 통해 얻은 교훈을 토대로 영국군은 소규모 부대 전술을 학습하고, 비정규전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들을 습득 및 훈련할 수 있었다.⁴⁸⁾ 특히 1896년 초판 발간 이후 영국군 포병장교로서 캐럴 자신이 직

46) Stanislav Malkin, 위의 논문, p. 663.

47) Stanislav Malkin, 위의 논문, pp. 665-666.

48) *Field Service Regulations*, 1920 (London: War Office, 1920); PRO WO 279/54. Report on Staff Exercise held by the CIGS, 30 October to 3 November 1922; PRO WO 32/3115 Milne, *Army Training Memorandum Number 4A. Guide for Commanders of Regular Troops at Home*, 1932, 29 Dec. 1931; War Office, *Training Regulations*, 1934 (London: War Office, 1934), p. 1.

접 경험한 보어전쟁의 비정규전 양상을 연구해 도출한 교훈을 반영하여 1906년 재발간한 그의 개정판은 교범에 버금가는 참고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⁴⁹⁾

이렇게 수용 및 정리된 보어전쟁의 유산은 제1차 세계대전 중 중동지역에서 벌인 비정규전 작전에 적용됐다. 하지만 본격적으로는 대전 종전 이후 영국이 세계 각지의 식민지에서 치른 전쟁과 반란 진압 과정에서였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영국의 주요 식민지였던 말레이반도에서 말라야 공산주의자들과 벌인 게릴라전에서 빛을 발했다. 이때 영국군은 보어전쟁을 반면교사로 삼아 대(對)게릴라전을 전개했다.⁵⁰⁾ 우선 신속하게 기동할 수 있는 독립된 정찰대(약 15명 단위)를 조직했다. 이어서 소규모 작전을 전개해 현지 게릴라들의 활동 반경을 축소한 채 집요하게 추적 및 공격해 중국에는 이들의 밀림 속 근거지를 무력화(無力化)시켰다. 특히 ‘춘락 재정착’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게릴라와 일반 주민을 분리하고, 은닉처로 통하는 접근로를 통제 및 차단해 병력과 물자 보급을 원천 봉쇄했다. 이는 보어전쟁 당시 영국군이 구사한 대(對)게릴라 전술을 답습한 모양새였다.

49)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켈웰의 저술은 전간기에 영국 킴벌리 소재의 육군 참모대학(Staff College)과 앤도버 소재 영국 공군참모대학(RAF Staff College)의 교과 과정에 포함되어 있었다(T. R. Moreman, “‘Small Wars’ and ‘Imperial Policing’: The British Army and the Theory and Practice of Colonial Warfare in the British Empire, 1919-1939,”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Vol. 96, 1996, pp. 109-110; Stanislav Malkin, “Transfers of colonial (dis)order: guerrilla warfare and the British military thought after the Great War,” *Small Wars & Insurgencies*, Vol. 33(8), 2022, pp. 1425-1427).

50) 제2차 세계대전 후 말레이반도에서 영국 식민지 주둔군과 말라야 공산당 반군 사이에 벌어진 무력충돌은 이른바 말라야 비상사태(Malayan Emergency, 1948~1960) 기간 중 발생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손석현, 『대반란전 사례 연구』(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16), ‘제2장 말라야 비상사태와 영국의 대반란전’(pp. 25-88)을 참조할 것.

5. 맺음말

19세기는 서양 열강의 제국주의가 가장 치열하게 전개된 시기였다. 1815년 나폴레옹 전쟁이 종결되고 영국에서 촉발한 산업혁명이 무르익는 19세기 후반기에 이르면 영국과 프랑스를 선두로 유럽의 열강들은 월등한 산업기술과 군사력을 앞세워서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으로 뻗어 나갔다. 곧 해당 지역의 대부분 영토를 차지한 후 식민지화했다. 이러한 와중에 서구 열강의 군대와 토착민 집단 사이에 수많은 무력충돌이 벌어졌다. 유럽의 군대는 선진된 무기체계를 활용하여 대부분의 경우 수월하게 후자의 저항을 제압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제국주의 영토 팽창 시대의 대표 국가는 바로 섬나라 영국이었다. 영 제국은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 이미 지표면의 4분의 1에 달하는 면적을 차지할 정도로 위세를 떨쳤다.

이러한 팽창 과정에서 영국은 끊임없이 전쟁을 수행했다. 보어전쟁은 이러한 무력 충돌들 가운데 가장 장기간에 걸쳐서 격렬하게 전개된 서양 제국주의 전쟁의 대표적 사례였다.⁵¹⁾ 보어전쟁 동안 영국 국내와 국제사회의 여론은 전쟁의 전개 및 결과에 따라

51) 보어전쟁 발발 이전인 19세기 후반기만 하더라도 영국군은 지구상 도처에서 식민지의 피정복민들과 무력충돌을 벌여 왔다. 예컨대, 인도 폭동(Indian Mutiny, 1857-1858), 아비시니아 전쟁(Abyssinia Campaign, 1867-1868), 아샤티 전쟁(Second Ashanti War, 1873-1874), 아프가니스탄 전쟁(Second Afghan War, 1878-1880), 줄루 전쟁(Anglo-Zulu War, 1879), 제1차 보어전쟁(First Boer War, 1880-1881), 이집트전쟁(Occupation of Egypt, 1882), 제1·2차 수단전쟁(Sudanese Wars, 1884-1885 & 1896-1899), 버마전쟁(Third Burma War, 1885-1892), 그리고 제2차 보어전쟁(Second Boer War, 1899-1902) 등을 들 수 있다.

크게 달라졌다. 보어전쟁이 시작될 당시만 해도 영국인들 대다수는 자국 정부의 제국주의 진출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고, 엄청난 애국적 열기가 전국을 휩쓸었다.

하지만 전쟁이 진행되며 초반 기대와는 달리 영국군이 수세에 몰리고 피해 규모가 커지자 국내 여론은 부정적으로 변했다. 일부 언론과 특히 자유당 계열의 정치인들은 전쟁의 비효율성, 민간인 수용소 문제, 그리고 보어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보복 행위 등에 대해 거세게 비판했다. 불가피하게 이는 영국 집권 보수당 정부 및 영국군 수뇌부에 상당한 압력으로 다가왔다. 국제적으로도 보어인 집단수용소의 열악한 조건과 이들에 대한 억압정책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초래하며 영국의 국가 이미지에 먹칠을 가했다.

그렇다고 보어전쟁을 통해 영국이 인적 및 물적으로 엄청난 손실만 입은 것은 아니었다. 전쟁 덕분에 종전 후 군 구조 및 지휘 체계를 개편하는 등,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한 사전 대비를 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민족자결주의의 영향으로 더욱 거세어진 식민지인들의 저항에 나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비정규전 관련 교리와 전술 개발 측면에서 전기(轉起)를 마련할 수 있었다. 직접적으로는 보어전쟁 시 얻은 비정규전 교훈은 이후 20세기에 영국군이 치른 식민지 전쟁과 반란 및 소요 사태 등에 적용되어 나름 실효성을 발휘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명한 군사사가인 이언 베케트는 보어전쟁 이래 면면하게 이어지며 형성되어 온 영국군의 비정규전 전통을, 1990대-2000년대에 영국 전쟁사 학계에서 큰 관심을 받았던 ‘영국적 전쟁방식(British Way in Warfare)’에 덧붙여, 제3의 영국적 전쟁방식(Another British Way in Warfare)으로 제시한 바 있

다.⁵²⁾ 비록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 제국은 사라졌지만, 영국 지상군은 21세기의 대표적 전쟁 유형 중 하나인 분란전(紛亂戰, insurgency warfare)⁵³⁾에 대한 대응전술 개발에 참고가 되는 유용한 군사적 교훈을 세계 전쟁사에 유산으로 남겼다고 볼 수 있다.

52) 베케트가 영국의 비정규전 전통을 강조한 이면에는 전쟁사적 측면에서 시대적 분위기와도 관련됐다. 즉 1990년 냉전 종식 이후 비정규전 형태의 전쟁이 대세로 부각되면서 영국의 군사적 전통에 내포되어 있던 비정규전 전통이 새롭게 주목을 받았기 때문이다. 한 예로 이러한 흐름을 반영이라도 하듯, 1990년 영국에서는 *Small Wars & Insurgencies*라는 학술지가 창간(1990. 4월 창간호 발간)되어 이후 2025년 현재 제36권까지 발간되며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이는 영국군이 비정규전 분야에서 그래도 뭔가 내세울 만한 전통이 있음을 반증하는 한 사례가 아닐까한다.

53) 흔히 비정규전의 다른 이름으로 인식되는 ‘분란전’이란 국가의 전복이나 정치적 변화를 달성할 목적으로 교전단체로 인정받지 않은 준(準)국가집단 또는 비정부단체 등이 국내라는 공간에서 벌이는 무력을 동반한 활동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위해서는 Thomas Rid & Thomas Keaney (eds.), *Understanding Counterinsurgency: Doctrine, Operations, and Challenges* (London: Routledge, 2010)를 볼 것.

〈참고문헌〉

1. 1차 자료

- Callwell, Charles E. *Small Wars: Their Principles and Practice*, Lincoln, NE: Univ. of Nebraska Press, 1996.
- Gwynn, C. W., *Imperial Policing*, 2nd. ed. (London: Macmillan, 1939).

2. 단행본

- Barnett, C. *Britain and Her Army: A Military, Political and Social History of the British Army 1509–1970*, London: Cassell & Co., 1970 [육군본부, 『영국육군사: 각국 육군사연구 제8집』, 서울: 육군인쇄공창, 1982].
- Beckett, Ian F. W., *Modern Insurgencies and Counter-Insurgencies: Guerrillas and Their Opponents since 1750*, London: Routledge, 2001.
- _____. “Another British Way in Warfare: Charles Callwell and Small Wars,” in *Victorians at War: New Perspectives*, Chippenham: Society for Army Historical Research, Special Publication 16, 2007: 89–102.
- Bowman, Tim & Mark Connelly, *The Edwardian Army: Recruiting, Training and Deploying the British Army, 1902–1914*, Oxford Univ. Press, 2012.
- Boyden, Peter B., Alan J. Guy and Marion Harding (eds), *Ashes and Blood: The British Army in South Africa 1795–1914*, London: National Army Museum, 1999.
- Chandler, David, ed., *The Oxford Illustrated History of the British Army*, Oxford: Oxford Univ. Press, 1994.
- Clayton, A., *The British Empire as Superpower 1919–1939*, London: Macmillan, 1986.

- De Moor, J. A. and H. L. Wesseling (eds.), *Imperialism and War: Essays on Colonial Wars in Asia and Africa*, Leiden: Brill, 1989.
- Dennis, Peter & Jeffrey Grey (eds), *The Boer War: Army, Nation and Empire*, Canberra: Australian Army History Unit, 2000.
- Gooch, John (ed.), *The Boer War: Direction, Experience and Image*, London: Frank Cass, 2000.
- Headrick, Daniel. *Tools of Empire: Technology and European Imperialism in the Nineteenth Century*, Oxford: Oxford Univ. Press, 1981.
- Jones, Spence, *From Boer War to World War: Tactical Reform of the British Army, 1902–1914*, Norman: Univ. of Oklahoma Press, 2012.
- Judd, Deni & Keith Surridge, *The Boer War*,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2.
- Krebs, Paula M., *Gender, Race, and the Writing of Empire: Public Discourse and the Boer War*,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99.
- Murray, Williamson and Peter R. Mansoor (eds.), *Hybrid Warfare: Fighting Complex Opponents from the Ancient World to the Present*, New York: Cambridge Univ. Press, 2012.
- Omissi, David & Andrew S. Thompson (eds.), *The Impact of the South African War*, Basingstoke: Palgrave, 2002.
- Pakenham, Thomas, *The Boer War*, George Weidenfield & Nicolson, 1979.
- Porch, Douglas. *Wars of Empire*, London: Cassell & Co., 2000.
- Rid, Thomas and Thomas Keaney (eds.), *Understanding Counterinsurgency: Doctrine, Operations and Challenges*, London: Routledge, 2010.
- Spiers, Edward M. “Chapter 10 Colonial Campaigning.” in *The Late Victorian Army*, Manchester: Manchester Univ. Press, 1992: 272–304.

- Strachan, Hew, ed., *Big Wars and Small Wars: The British army and the lessons of war*, London: Routledge, 2006.
- Whittingham, Daniel. *Charles E. Callwell and the British Way in Warfare*,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2020.
- 맥스 부트, 문상준 & 조상근 역, 『보이지 않는 군대: 게릴라전, 테러, 반란전과 대반란전의 5천년 역사』, 서울: 플래닛미디어, 2023.
- 박지향, 『제국주의: 신화와 현실』, 서울: 서울대출판부, 2000.
- 손석현, 『대반란전 사례 연구』,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16.
- 원태재, 『영국육군개척사: 나폴레옹전쟁에서 제1차 세계대전까지』, 서울: 한원, 1994.
- 찰스 톤젠드 외, 강창부 역, 『근현대 전쟁사』, 파주: 한울아카데미, 2016.

3. 논문

- Beckett, Ian. “British counter-insurgency: a historiographical reflection,” *Small Wars & Insurgencies* 23, nos. 4-5 (2012): 781-798.
- French, David. “Nasty not nice: British counter-insurgency doctrine and practice, 1945-1967,” *Small Wars & Insurgencies* 23, nos. 4-5 (2012): 744-761.
- Gray, Colin S. “Irregular Warfare: One Nature, Many Characters,” *Strategic Studies Quarterly* (Winter 2007): 35-57.
- Hughes, Matthew. “Introduction: British ways of counter-insurgency,” *Small Wars and Insurgencies* 23, nos. 4-5 (2012): 580-590.
- Malkin, Stanislav. “Transfers of colonial (dis)order: guerrilla warfare and the British military thought after the Great War,” *Small Wars & Insurgencies* 33, no. 3 (2022): 1421-1443.
- Moreman, T. R., “‘Small Wars’ and ‘Imperial Policing’: The British Army and the Theory and Practice of Colonial Warfare in the British Empire, 1919-39,”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19 (4) (1996): 105-131.
- Pagaard, S., “Disease and the British Army in South Africa, 1899-1900,” *Military Affairs*, 50 (1986): 71-76.

- Scheipers, Sibylle. “Counterinsurgency or irregular warfare? Historiography and the study of ‘small wars’,” *Small Wars & Insurgencies* 25, nos. 5–6 (2014): 879–899.
- Strachan, Hew. “The British Way in Warfare Revisited,” *Historical Journal* 26 (2) (1983): 447–461.
- Wessels, Andre. “A Historical Overview of Boer Guerrilla and British Counterinsurgency Operations during the Anglo–Boer War, 1899–1902,” *Small Wars & Insurgencies* 34, no. 2 (2023): 328–356.
- Whittingham, Daniel. “‘Savage warfare’: C. E. Callwell, the roots of counter–insurgency, and the nineteenth–century context,” *Small Wars & Insurgencies* 23, nos. 4–5 (2012): 591–607.
- 박창희, “비대칭 전략에 관한 이론적 고찰,” 『국방정책연구』 제24권 제1호, (2008): 177–205.
- 이내주, “19세기 영제국의 식민지전쟁과 그 수행방식: 찰스 캐웰의 ‘작은 전쟁 (Small Wars)’ 이론을 중심으로,” 『영국연구』 제51호 (2024): 2–35.

<Abstract>

The Second Boer War(1899-1902) and the Development of British Irregular Warfare Tactics

Lee, Nae-Joo

(Senior Research Fellow of Military History, KIMA)

Guerrilla warfare, characterized by its irregularity and covertness, emerged clearly as a form of warfare after World War II. Throughout history, this form of irregular warfare has developed especially as colonized peoples rebelled against the domination of imperialist powers, and it was especially typical in Southeast Asia in the immediate aftermath of World War II, when the struggles for independence in the colonies were intense. In the Malay Peninsula, the British fought a fierce guerrilla war against indigenous communist forces seeking independence. Unlike other imperialist nations, the British are considered to be effective in armed conflict with the guerrillas.

So how did the British army respond to the anomalous resistance of its colonies? The answer is that the British army had been trained in counter-guerrilla warfare tactics and military doctrine as well as traditional regular military operations doctrine. Of course, the British had not been able to respond effectively to colonial armed action in the 19th century. The Boer War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was crucial in changing that trend. After being beaten down by

the guerrilla tactics of the Boers, the British army actively developed irregular warfare tactics and doctrine, and applied them to military training, so that they could better respond to the increasingly intense colonial resistance in the 20th century.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examines the Boer War and its impact on the British army, focusing on the irregular warfare aspect. Although the British Empire ceased to exist after World War II, the tactics developed by the British army in the wake of the Boer War to combat irregular warfare remain militarily relevant in the 21st century.

Keywords : Irregular Warfare, Boer War, Transval Republic & Orange Free State, Guerrilla Warfare, Charles Callwell, Charles Gwynn